

아름다운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서 일주일 살기·90일 여행하기 이벤트 참가희망자 이달 22일까지... 블로그·페이스북 등에서 응모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인심을 몸소 체험한 뒤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이벤트가 열린다. 한국관광공사는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등 변화하는 여행 패턴에 맞춘 다양한 국내 여행 사업을 두 가지로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하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 : 일주일간 내가 만난 풍경들' 이벤트다. 기존 여행이 어디를 꼭 가야 하는 '코스'에 집중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낯선 환경에서 영감을 얻고, 재충전하기 위해 '머무름'에 집중하는 새로운 여행 패턴에 맞춘 것이다. 유명 관광지 아닌 조용한 산촌·어촌 마을, 구도심 등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속소를 엄선해 살아보기 여행을 한다. 경남 남해군·거제시·통영시, 전남 목포시, 전북 군산시 등에서 7월30일부터 9월9일까지 총 6차에 걸쳐 6가지 살아보기 여행을 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6월29일부터 7월12일까지 14일간 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체험지는 총 6개 팀(각 2~6명)을 선정해 일주일(6박7일) 숙박권을 제공한다.

관광공사는 체험자들이 여행 기간 경험한 느낌을 그대로 살린 동영상 또는 사진과 스토리들을 받아 관광공사 국내여행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 이벤트는 숙박 큐레이션 플랫폼 스테이폴리오(www.stayfolio.com)와 협업한다. 80년 된 한옥, 적산가옥, 제주도 돌집 등 독특한 로컬 스테이를 발굴해 재생하는 기업이다. 2015년 관광벤처기업으로 지정됐다. 다른 하나는 '나를 찾아 떠나는 90일간의 여행 마이 리얼 캡 이어(My Real Cap Year) 시즌 2'다. 올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마이 리얼 캡 이어'는 학업이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여행을 통해 흥미와 적성을 찾아뵙고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을 독려하는 프로젝트다. 시즌1에서는 약 29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이 된 강수정씨가 올해 3월~6월 국내 21개 지역, 63개 관광지를 방문하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강씨의 생생한 여행 스토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20만 명 넘는 사람이 읽었다. 참가 희망자는 7월2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응모하면 된다. 1차 합격자는 7월26일 같



은 채널에서 발표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블로그에서 지원 요령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관광공사는 최종 합격자 1명에게 교통, 식사, 숙박 등 여행에 필요한 기본 경비 일체를 지원한다. 여행지는 응모할 때 정하면 된다. 한화준 관광공사 국내온라인홍보팀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내 여행의 숨은 매력들이 청년층을 비롯해 국민 전체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오페라·발레 콘서트'

부안예술회관서 이달 6일... 선착순 무료입장

오는 7월 6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금상첨화(錦上添花) : 오페라·발레 콘서트'가 펼쳐진다.

부안군은 2018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지방공공 문화공간 사업에 선정되어 수준 높은 공연들을 군민에게 선보이고 있어 이번 공연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연은 실연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유명 오페라와 발레 음악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풍성한 무대로 구성되었고, 지휘자 진솔의 지휘 아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메조소프라노 최승현, 바리톤 이응광의 멋진 성악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발레곡으로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오페라극에는 카르멘, 세비아의 이발사, 라 트라비아타 곡이 해설과 함께 선보인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예술의전당 상주오케스트라로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극장오케스트라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매년 90회 이상 연주활동을 하며, 관현악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연



주단체로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의 공연 연주를 전담하는 전문오케스트라이다. 7월 6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본 공연은 선착순 무료입장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영화영상산업 발전과 지방대학 성장 위해 '맞손'

전주영상위원회, 전주대 핵심인력사업단과 산학협약 체결

3년동안 지방대 특성화 사업 위한 상호 교류 추진

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대 K-History 2H 핵심인력사업단이 대한민국 영화영상산업 발전과 지방대학의 성장을 위해 손을잡았다.

전주영상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주대 핵심인력사업단(단장 이상균)과 향후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산학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부터 3년간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을 위한 상호 교류 △산학 연계 공동연구 및 R&D 기술지도 협력 △학생 실무 연수를 위한 현장 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졸업생 취업지원 등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관련분야 공동연구 및 우수인력개발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서배원 시 문화정책과장(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직무대리)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대 학생들과 전주 영상위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하며 사업단과의 보다 긴밀한 업무협업을 통해 청년 인턴십, 취업지원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힘

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영상위원회는 영상물 촬영유치·



전주영상위원회와 전주대 K-History 2H 핵심인력사업단이 대한민국 영화영상산업 발전과 지방대학의 성장을 위해 손을잡았다.

지원 사업, 전라북도의 영상관련 인재육성, 영상산업인프라 확충 및 전주를 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설립 되었고, 전주대 History 2H 핵심인력 양성사업단은 지역사 전문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지역산업의 문화유산 인력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韓(한)문화 특성화분야 사업단이다. /송효철 기자

유시민 '역사의 역사'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가 출간과 함께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차트에서 1위로 올라섰다.

6월 20~26일 차트에서 2위인 인생 명언집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와 하태완의 '모든 순간이 너였다'를 따돌렸다.

'역사의 역사'는 남성 독자 비율이 52%로 여성(48%)보다 높았다. 30대 여성 독자의 비중이 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남성(16.8%), 30대 남성(16.6%), 40대 여성(16.5%) 순이다.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교양이',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회고록 '3층 서기실의 암호', 건축가 유현준의 '어디서 살 것인가',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

다' 등 상위권 인기도서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SNS 채널 운영자인 정승환의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는 출간과 동시에 14위에 꽂혔다. 판타지 작가 이영도의 '오버 더 초이스', '오버 더 호라이즌'은 17, 25위로 진입했다.

인터파크도서 6월 21~27일 차트에서도 '역사의 역사'가 '모든 순간이 너였다'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3, 4위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마존 미래전략을 분석한 다나카 미치아키의 '아마존 미래전략 2022'는 출간 즉시 10위에 이름을 걸었다. /뉴시스

남원시민도예대학 수료식·작품 전시회

남원시는 지난 29일 춘향테마파크 내 남원시민도예대학에서 제38기 남원시민도예대학 수료식 및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제38기 남원시민도예대학은 기초(주·야간)과정, 실기(주간)과정, 응용(야간)과정 등 4개 반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2회, 1일 2시간 총 16주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54명이 수료를 하게 됐다

한 남원시민도예대학은 1999년 9월 개관 이래 지금까지 일반시민과 직장인 등 38기에 걸쳐 1,89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전통장작가마 화입(火入 : 가마터에 불을 넣어 도기 굽는 일을 시작함) 식 및 수강생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도예작품 100여점을 도예대학 전시실에서 7월 6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